

서울에는 15개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가 있다. 각 공동체는 한달에 한번씩 함께 미사를 올리고 나눔을 한다. 또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2~3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눔을 한다. 금년에는 6월에 실시하였으며, 보통 함께 미사를 올린 후 각 공동체 활동과 멤버를 소개하고 간단한 음식 나눔을 한다. 공동체간 나눔을 통해 타 공동체의 장점을 배우고 서로 더욱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. 또한 각 공동체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피정이나 MT를 간다.

서울 MLC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4번째 주일마다 "씨네 앤 톡"을 해오고 있다. 이것은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. 종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를 함께 본다.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, 함께 영화를 보고 느낌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것 같다. 서로의 느낌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더욱 친밀함과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된다. 또한 서로의 감정과 고민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.

